

한화, 대우조선 인수 MOU 체결

산업은행과 2008년까지 최종 매매계약 ... 2009년 3월까지 잔금 납부

산업은행과 한화컨소시엄은 대우조선해양 지분 매각과 관련해 양해각서(MOU)를 체결했다고 11월14일 발표했다.

MOU에 따르면, 산업은행과 대우조선해양 우선협상자인 한화컨소시엄은 2008년 말까지 최종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2009년 3월 이전에 잔금을 납부해야 한다.

MOU 체결에 따라 한화는 앞으로 3영업일 사이에 입찰금액의 5%를 이행보증금으로 납부하고 3-4주에 걸쳐 대우조선에 대해 상세 실사를 진행하게 된다.

산업은행과 한화는 10월24일 우선협상자 선정 이후 MOU 체결을 위한 협상을 진행했으며, 특히 11월10일부터는 매일 밤늦도록 강행군을 벌인 끝에 11월14일 새벽 5시경 최종 합의를 본 것으로 알려졌다.

업계에서는 최종 잔금납부 시점이 주요 쟁점이었던 것으로 보고 있다.

산업은행은 계획대로 2008년까지 본계약을 체결하고 주식까지 넘기고 싶어하는 반면, 한화는 최근 금융시장 상황이 악화되는데 따라 잔금 납부시점을 2009년 이후로 미루고 싶어한 것으로 알려졌다. <저작권자 연합뉴스 - 무단전재 · 재배포 금지>

<화학저널 2008/11/14>